

녹두밭

2020 | 가을 | 41호

녹두칼럼

이영호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기획전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

유적지 탐방

논산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참여자 유족 인터뷰

김영웅 / 참여자 김낙철의 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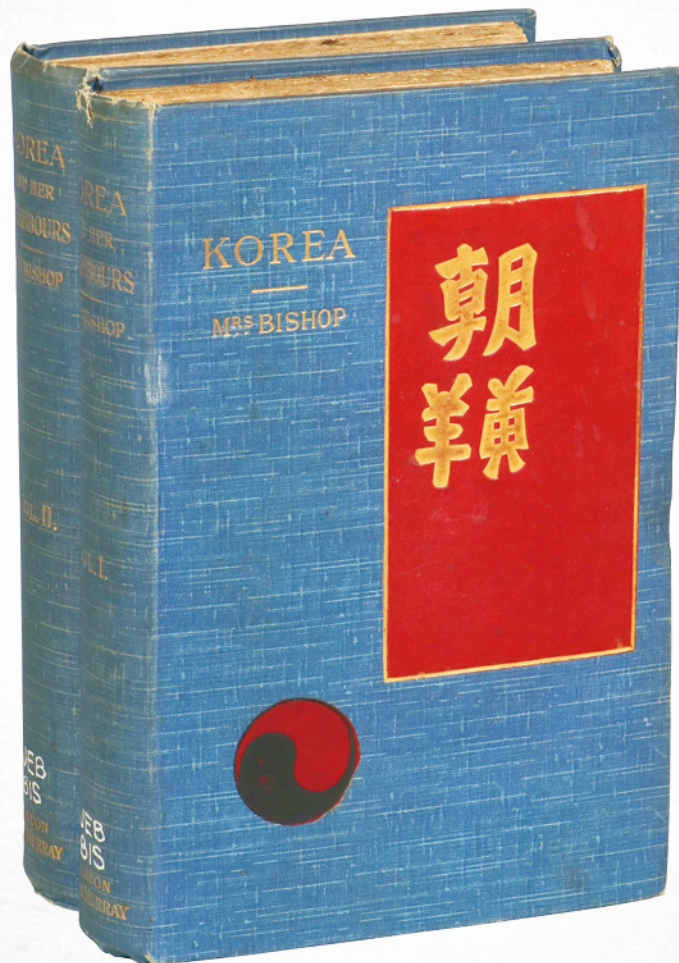
기념관 사람들

학예사 인터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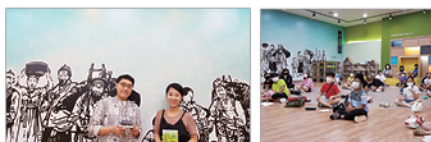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1898년, London UK, 14.5向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Korea and Her Neighbours』은 영국 출신의 저명한 여행가였던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까지 한국을 여행하고 저술한 책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벌어지던 때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접한 경치와 조선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은 반란자들이기보다 무장한 개혁자라고 부르고 싶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외국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목차

- 04 **녹두칼럼**
이영호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06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산국역총서 12
기념재단 유물 기증
찾아가는 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기획전
- 18 **참여자 유족 인터뷰**
김영웅 / 참여자 김낙철의 손자
- 26 **유적지 탐방**
논산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30 **기념관 사람들**
학예사 인터뷰
- 38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44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 단체
- 45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46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안내**



표지 설명 : 황화대 전투지 (충청남도 논산시)

황화대(봉화산)는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티에서 패배하여 후퇴하던 중 추격하던 일본군 및 관군 연합부대와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한 곳이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남쪽으로 퇴각하면서 원평 구마탄과 태인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동학농민혁명’의 민중적 계보



이영호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 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으로서 “1894년 1년간 전개된” 사건을 가리킨다.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이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 즉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으로 발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1년간 전개된 사건이라 했지만 19세기 민중항쟁과 동학의 창도 등 그 배경도 중시하고 있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이후 이를 계승한 변혁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에 대한 논의는 아주 부진하다.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에서 그 계승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여 반가웠다. 그런데 특별기획전의 제목은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합성 - 민족대표 33인 중 9인이 동학농민혁명지도자?”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천도교 민족대표에게 계승되었나 하는 의문을 품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에 계속 투신한 동학여당(東學餘黨)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동학 남접 손화중의 부하들이 교주 최시형의 반대로 기포하지 못하게 되자 영학당(英學黨)을 결성하여 전북 일원에서 반체제·반외세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한 일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학여당의 변혁운동은 1903~1904년에 이르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동학여당의 변혁운동이 소진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진보회운동이었다. 진보회운동은 1904년 가을 평안도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동학교단(북집) 소속 이병춘 등이 주도하여 전북과 충남 일원에서도 일어났다. 이후 진보회는 일진회와 통합하여 정치적인 세력으로 발돋움했고, 이미 1901년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문명개화노선으로 전환한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손병희는 1905년 12월 천도교를 창건할 수 있었다.

천도교는 합법공간에서 문명개화노선을 취하면서 근대종교로 거듭났다. ‘동학농민혁명’ 및 동학여당의 변혁운동과는 결별했다. 동학의 남접세력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물론이고, 반외세 봉기에 참여했던 북접교단의 흔적도 천도교의 역사에서 삭제했다. 천도교가 동학의 변혁운동, 농민의 혁명운동을 자신의 전사(前史)로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게 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의 일이다.

3·1운동은 천도교에서 선도하면서 기독교와 연대했다. 천도교는 문명개화노선의 개화파를 대거 수용했고 기독교는 본래적으로 문명개화노선에 있었으니,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노선상 연대가 가능했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선창에 의해 3·1운동은 전 민족적 범위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운동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종교인들이 앞장섰으나 후기로 가면서 학생·지식인·노동자·농민 등이 압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으며, 장소성의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서북지방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후기에는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일어났다.

단재 신채호는 3·1운동에서 근대사회의 주체로서의 ‘민중’이 출현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기원은 19세기 농민항쟁과 ‘동학농민혁명’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동학여당의 변혁운동 등을 거쳐 3·1운동의 민중층에서 역동적으로 분출했다.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사이에는 여러 계열과 노선의 민중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채 잠복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계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민중적 계보의 발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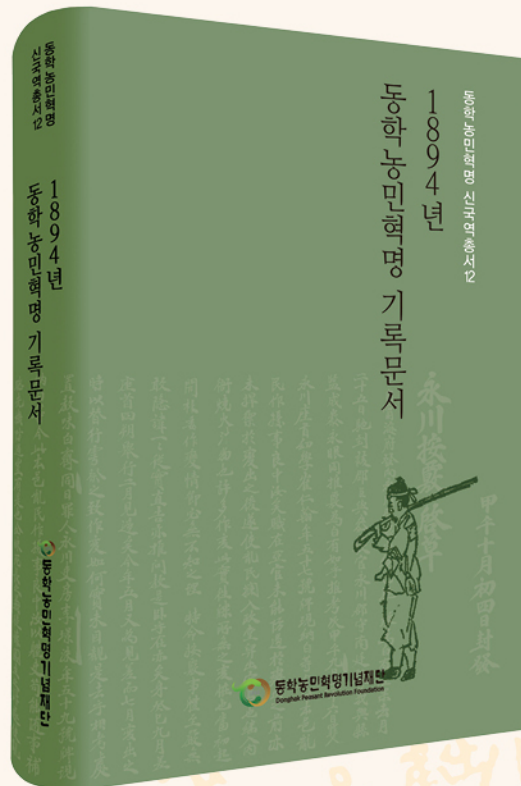
이영호(李榮昊, Lee Young-ho)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분야는 한국 근대의 사회경제사, 민중운동사, 지역사 분야이다. 저서로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동학과 농민전쟁』(2004, 해안), 『개항도시 제물포』(2017, 민속원),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토지소유의 장기변동』(2018, 경인문화사),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2020, 푸른역사)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지난 6월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형규 위원장(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심의위원 최희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이재운(전주대 교수,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최민재(동학학회 회장)위원과 관계기관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등록 신청 30건을 심의, 28건(유족 360명)을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참여자는 3,670명, 유족은 11,582명이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2』 발간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지난 8월 3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2」를 발간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들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 21종을 선별하여 수록한 이번 총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군현의 대응, 양반 유생들의 인식, 동학농민군의 활동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집이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2』는 총 21종의 자료를 번역문과 원문, 영인본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된 총서는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e-donghak.or.kr)에 탑재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들은 2004년 개관 이후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정읍시로부터 이관을 받거나 구입한 자료들과 2011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해오면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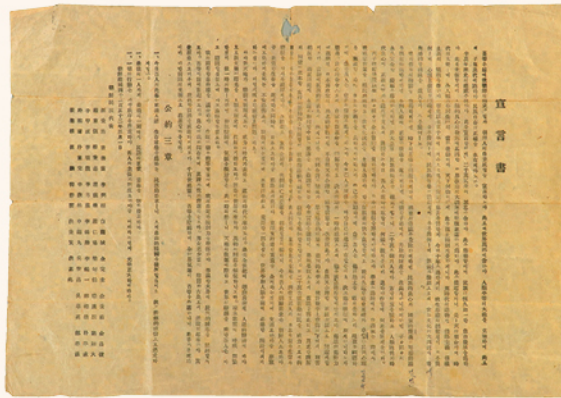
기념재단 유물 기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홍기(金洪基) 대접주 증손 김동규(金東圭) 씨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동학농민혁명 및 천도교, 3.1운동 관련 자료 『東學과 東學亂』, 〈독립선언서〉, 〈천도교 관련 성명서〉, 『천도교 역대 요람』, 『현기문답』 등 유물 6점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기증한 유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원본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참여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자료, 천도교, 3.1운동 당시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증된 유물은 향후 학술연구·전시·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東學과 東學亂』, 19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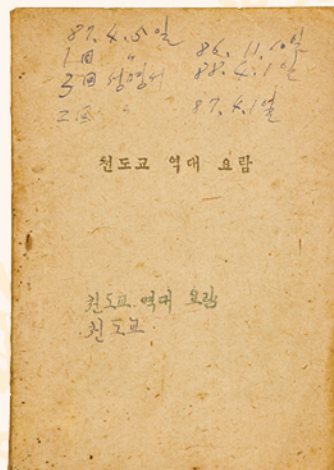
〈독립선언서〉,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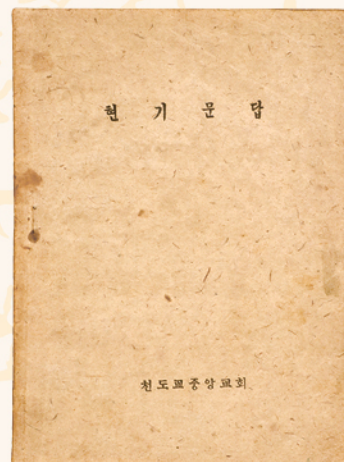
〈천도교 관련 성명서〉, 1945년



〈천도교 관련 성명서〉, 1947년



『천도교 역대 요람』, 시대미상



『현기문답』, 1948년

찾아가는 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 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과 박물관 및 교육기관 등을 '찾아가는 기념관'은 그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혔던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동화 형태로 재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패널 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6~8월에는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남원향토박물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을 찾아가 전시하였다.



정읍 북부노인복지관 | 2020.6.10. ~ 2020.7.1.



남원향토박물관 | 2020.7.10. ~ 2020.7.31.



김대중 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 2020.8.14. ~ 2020.9.1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기획전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

기획 |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지난 2020년 6월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전이 개막되었다. 2020년 11월 1일까지 전시될 이번 ‘특별기획전’은 ‘동학란’으로 인식되던 갑오년의 역사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을 갖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학계의 연구, 각계의 기념사업과 문화예술 활동 등을 살펴보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직후에는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선 인물들의 공적비가 전국에 세워졌고, 1900년대 중·후반부터는 동학농민혁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이 기울어졌다. 그 결실로 마침내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 126년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부> 농민군 반대세력의 공적을 기린다 <2부> 학계의 연구, 그날의 진실에 다가간다 <3부> 민간단체의 활동, 대중 속에 스며들다 <4부> 역대 대통령, 동학농민혁명에 주목하다 <5부> 국가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의 미래를 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실 내부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



전시실 내부

1부 농민군 반대세력의 공적을 기린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최초의 기념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농민군을 진압하던 세력을 위한 것이었다.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진압세력의 공적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조선조정과 유림 등의 주도 하에 현창사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투 중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의 충의를 기린 공적비와 사당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사실은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등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동학농민군 반대세력의 공적을 기린 공적비와 사당은 전국에 20여 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설물들은 청주의 모충사, 장흥의 영화당, 장성의 이학승 순의비, 남원의 박봉양 갑오토비사적비, 나주의 토평비 등이다. 한편, 일본군 병참부가 있던 충주의 가흥에는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공적비 2기가 세워져 있기도 하다.



이학승 순의비 | 전남 장성군 (1897)
이학승 순의비는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전라도로 내려왔다가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경군 대관 이학승의 충절을 기리는 기념비다.



장흥 영화당 | 전남 장흥군
장흥 영화당은 1894년 12월 5일 동학농민군이 장흥읍성을 공격할 때 성을 방어하다가 죽은 장흥부사 박현양 외 96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2부 학계의 연구,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다

동학 '란'이 오늘날 '혁명'으로 재평가 된 것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사상'과 '농민'이라는 주체,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혁명'으로 규정하여 조합한 명칭이다. 동학 '란'이라는 지배층의 시선을 거두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의의 등을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부합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연구를 거듭하여 동학농민혁명은 단순 민란이 아닌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친 국제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간임을 규명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김상기, 한우근, 전석담, 김용섭 등이 활동하며, 사회변혁 운동의 관점으로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공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에 들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한 연구 활동과 성과가 폭발하듯 나타나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신용하, 이이화, 정창렬 등의 연구자가 활발히 활동하였다.



『동학과 동학란』 김상기 대성출판사 | 1946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김동규 기증

이 책은 1931년 사학자 김상기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을 단행본(1946년)으로 출판한 것이다. 총 36회에 걸쳐 게재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그 발생과 결말 등 사건의 전 과정을 서술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본격화에 기여하였다.

3부 민간단체의 활동, 대중 속에 스며들다

전문가 집단의 연구 활동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내외 역사학계의 인식을 변화시켜왔다면, 민간의 여러 단체가 추진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참여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대중의 역사인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1946년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천도교 청우당의 주최로 지역 최초 동학군 위령제가 열려 희생자 2천여 명의 넋을 위로하였고, 1954년에는 천안 전씨 문중에서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인근 야산에 전봉준 장군의 단비(허묘)를 세웠다. 어렵게 그 명맥을 이어오던 민간의 기념사업이 큰 전기를 맞은 것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100주년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유적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후손임을 숨기고 숨죽이며 살아야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발족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전봉준 단소 설치 및 단비 건립 기념사진|이 사진은 동학농민혁명 60주년이 되는 1954년 천안 전씨 종중에서 전봉준을 기리기 위해 단소를 설치하고 단비를 건립한 것을 기념하여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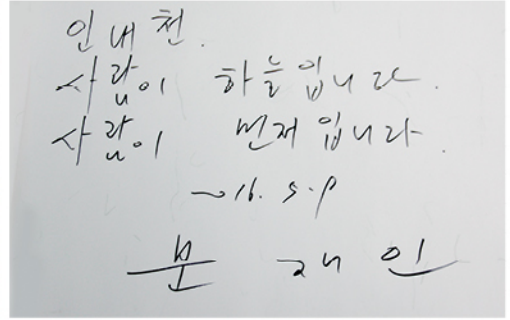
갑오동학혁명순국선열추념식|1965년 참여자 유족 문영식 개인소장. 이 두 장의 사진은 충남 태안에서 개최한 갑오동학농민혁명순국선열추념식 때 촬영한 것으로 1965년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4부 역대 대통령, 동학농민혁명에 주목하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주목하여 새로운 시대상을 모색하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정권의 형태나 시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현대사에 다시 한 번 등장하여, 전 국민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환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제13회 정읍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 | 1980. 5. 11.



문재인 대통령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 2016. 5. 9.

5부 국가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의 미래를 열다

1980년대 민주화를 열망하던 우리 국민에게 큰 영감을 제공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벌인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자 동학 '란'이라는 사회 인식은 확연히 열리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발족하여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라북도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수탁·운영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후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제11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화해와 상생의 장' | 경복궁 앞마당, 2007. 11. 8.



전봉준 동상 건립 | 서울 종로, 2018. 4. 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낙철의 손자 김영웅

Q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김 낙자 철자(1858~1918) 님의 손자 김영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때 전라도 부안에서 대접주로 활동하신 김 낙자 철자의 손자 김영웅입니다. 저는 1994년 유족회가 창립되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 몸담고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일에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족회 창립을 준비하던 초창기 때부터 벌써 3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 현재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를 맡아 조부님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Q 선생님,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평가절하되었다가 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을 전후하여 역사학계 전공연구자는 물론이고 전국 각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기념사업단체를 창립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분들을 모아 유족회를 만드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범국민적인 재인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동학농민혁명 110년 만인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25년 만인 지난해 2월에

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5월 11일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정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올해는 정부 주최 두 번째로 지난 5월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올해는 기념식이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었지요. 어쨌거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기념식 개최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제가 작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도 참석했고, 올해 행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할아버지도 떠오르고 하여 행사장에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동학란이라고 해서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혁명으로 불리면서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해주셨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3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창립식은 역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님이나 고(故) 우운 박사님 그리고 우리 유족회 정남기, 김성황, 손주갑 등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학계의 큰 보배이신 고(故) 이이화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얼마 전에 타계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족회 창립 초창기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故) 이이화 선생님이 유족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김낙철 대접주와 부인

Q

선생님께서 언제 유족등록을 하셨고, 어떤 계기로 등록을 하게 되셨나요?

A

제가 유족으로 등록한 때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후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 등록은 마무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안에 누님들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살아있는 형제자매만 유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Q 선생님은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경로로 통해 알게 되었고,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A 그 계기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되던 해였어요. 그 무렵 언론과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한다고 활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때 전북일보사가 동학농민혁명 특별취재진을 구성해서 매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연재했어요. 그때 전북일보에 우리 조부님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신문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북일보사 동학농민혁명 특별취재팀과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님이 우리 집이 있던 유성(대전광역시)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Q 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한 해 앞둔 1993년부터 2년간 전북일보사에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동학농민혁명사를 취재하여 보도하였지요. 서울대 박명규 교수, 원광대 박맹수 교수, 정부기록보존소 이진영 박사 등 연구자들과 전북일보 기자 세 명인가? 특별취재팀을 꾸려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되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도화선 역할을 그 특별취재팀이 수행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재한 내용이 1995년에 『동학농민혁명 100년』(나남출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해에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특별취재팀이 한국기자상을 받았지요. 그때 선생님께서 조부님의 역사,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고양되는 속에서 서울의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족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유족회 창립을 논의했었습니다. 1993년 가을에 경북 예천군 성당에서 고(故) 이이화 선생님이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특강이 있었는데, 그 성당의 신부님과 예천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참여자 전기항 님의 손자 전장홍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그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흩어져 있던 유족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마침내 1994년 3월에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었지요. 초창기에 이현도, 고(故) 김환옥, 고(故) 김상기, 정남기, 전장홍, 김성황, 함기영, 문영식, 손주갑, 전성준 그리고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함께하셨지요.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얘기네요.

A 그랬지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젊었어요. 백주년이 되던 그 해에 박맹수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친필 원본을 찾고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원본을 찾으려면 전북 부안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전북 부안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호암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전북일보 취재팀 기자님들이랑 박 교수님이랑 찾아갔어요. 거기에 박기종씨라고 천도교 선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아흔이 넘으

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용암 김낙철 대접주의 친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칠팔 명을 급히 불러 모이게 하더니 저한테 합동으로 큰절을 하더라고요. 어리둥절했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그때는 야수라고 불렀는데 야수가 잡혀갈 때 열두 제자가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가만히 그분들 얘기를 들었지요. 그분들의 얘기의 결론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조부이신 용암 선생님이 그렇게 최시형 선생님을 목숨으로 보좌하였고, 중국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절세의 충신이라는 얘기였어요. 동학농민혁명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크게 패한 후 최시형 선생님과 용암 우리 조부님 등이 강원도 원주인가? 홍천인가 피신을 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피신해 있던 집으로 관군이 들이닥쳤대요. 그때 제 조부님께서 “내가 해월이다!” 그렇게 외치고 잡혀갔다고 해요. 제자로서 스승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잡혀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진짜 최시형 선생님이 체포되어 순국되었고, 최시형 선생 행세를 한 우리 조부님은 가짜임이 밝혀져 방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면이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Q 전북 부안의 호암수도원에 가셨을 때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더듬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그때 호암수도원에 갔더니 학산 정갑수라는 분을 신격화하고, 그분에 대한 책도 펴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정갑수라는 분이 우리 큰 고모부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자를 사위로 삼았던 모양이에요. 학산 정갑수 선생은 우리 조부님의 동학 제자이자 사위였던 셈이지요.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큰 고모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이분에 대해 그때까지 면식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학산정갑수선생전기』 1994년
천도교호암수도원

Q 동학농민혁명 이후 충북 보은 등으로 전전하시다가 이곳 여산(전북 익산시)에 정착한 후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할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는지요?

A 어머니(김문강)께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김영식)와 아버지 형제간들도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활동하셨던 부안군(전북)에 거의 왕래를 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박 교수와 같이 호암수도원에 찾아가서 만났던 박기종 선도사님과 정읍시 문화원장 고(故) 최현식 선생한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 유족회 활동을 초장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남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하고도 많이 접촉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현식 선생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네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조부님, 용암 김낙철 선생님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할아버지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나 책을 보면 할아버지는 동학에 참여했어도 싸우고 창을 들고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삶을 보면 관과 민과 교량역할을 잘 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과 민에서 할아버지 뜻을 많이 반영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1894년 2월 28일(음력) 전봉준 장군과 손화중 선생이 4천여 명을 이끌고 전북 부안에 와서 당시 부안 현감이던 이철화를 처형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손화중 선생한테 가서 동학사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청



을 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체포되어 서울서 수감생활을 할 때 그 부안 현감이 중앙 요직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서울서 처형이 안 되고 살아나셨던 것 같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한 집안에서 여러 형제가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 조부님 형제분도 함께 참여하셨지요?

A 저희 할아버지(김낙철)의 동생분이 김자 낙자 봉자이신데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세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종조부님(김낙봉)의 증손자 김문철이라고 있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항렬로는 제가 높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별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참여자 조사하고 유족등록하고 그럴 때 제가 그쪽 집안에 또 연락을 해서 그쪽 집안 분들도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했습니다.

Q 조부님은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A 할아버지 산소는 현재 논산(충남) 은진에 있습니다. 원래는 할아버지 묘소가 서울 이태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서울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 나이 10살 무렵 쯤 논산 은진으로 이장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41년생이니까 해방 이후가 되겠네요. 창호지에 유골을 싸서 땅에 매장한 것을 봤으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을 합장했고 성묘는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라서 그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묘가 있던 그곳은 원래 우리 집안 산이었는데 장형이 형편이 좋지 못해 팔아서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사려고 했지만 산 주인이 팔지 않아 아직까지 되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묘소도 조부모님 묘소 근처에 모셨습시다. 남의 땅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 7, 8년이나 되었나? 전에 부안 군에서 문화원장하고 몇 분이 와서 호암수도원이 위치한 부안 상서면 감교리 쪽에 학산 정갑수 큰 고모부님 묘가 잘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학산 장갑수 선생의 장인이고, 스승이고 하니까 할아버지 묘를 그쪽으로 이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계신 형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얘기하기를 정읍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 여러 모양새로 보더라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모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부안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의 할아버지 묘소로 각지에서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해인가는 광주에 사는 분이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매번 산소에 와서 벌초합니다. 그분은 천도교 분인데 저의 할아버지 묘소 뿐 아니라 최시형 선생님 묘소도 그분이 벌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부님의 사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할아버지 나이는 30대 중반이었고 집안은 꽤 윤택했던 것 같습니다. 전해들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1893년에 전라도 및 제주지역에서 심한 흉년이 들어서 전라도 부안, 김제가 곡창지대니까 이쪽으로 쌀을 사러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안 창고에서 쌀을 줬다고 들었고, 제주도 사람들이 쌀을 사가는 것을 동학농민군이 못 가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쌀 한 톨도 못 건들게 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다 줘서 보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보면 할아버지 집안은 만석지기는 못돼도 7천석 지기는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안에서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일꾼들이 수십 명으로 부자였는데 동학농민군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서 가산이 많이 기울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동학농민군을 돕기 위해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체포되어 나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50여 명이 그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꼭 풀어줘야 된다고 나주 형무소 앞에서 연좌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나주 목사가 이런 모습에 감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의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했던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시원(始原)입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6월 21일(음력)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폭거를 자행하자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일



용암 김낙철 대접주의 묘소와 손 김영웅 선생님 (충남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37-10)

어난 반일의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그 후손들은 오히려 숨죽여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집안은 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인해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A 할아버지께서 전북 부안군에 계시면서 활동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후 부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계룡산, 보은으로 거주지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논산 은진에 정착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가세가 크게 기운 건 말할 나위 없지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제 장형까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누님이 7명, 남자 형제가 6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인데 저는 아들로는 다섯 번째이고 순서로는 열 두 번째입니다. 장형은 복막염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은 6.25로 전사하셨고, 셋째 형은 3년 전에 병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형님과 동생만 현재까지 살아있습니다. 셋째 형님은 청량리에서 잘 사셨는데 사실은 이복형제입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3분이 계십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께서 삼형제를 낳으셨는데, 다른 형제들은 타지로 떠나고 저만 끝까지 논산 은진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중학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제 2살 위로 형님이 계시는데 호적상으론 1살 차이입니다. 형님은 중학교 진학을 했지만 저까지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어 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는 얼마 못 다녔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어 그때 중앙통신강의라고 해서 1년에 중학교 3년을 마치는 특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Q 바쁘신 가운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놓친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할아버지께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몰라도 아무래도 할아버지 유전자가 다 저한테 집중되어 내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척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남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몸 기꺼이 내놓으셨던 할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 늘 마음 다잡고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대에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에도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명재(윤증) 고택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 이후 국내외 정치정세를 살피던 전봉준 장군은 1894년 9월 10일(음력)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일본군 축출을 위한 제2차 기병을 단행하였다. 이후 북접과의 연합전선 구축을 위해 힘을 기울여 성사시킨 후 10월(음력) 중순 경 논산으로 나아갔다. 이때 동학농민군이 노성에 이르렀을 때에 윤증 고택을 잠시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그곳에서 나왔는데, 일부 동학농민군이 문간에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러자 노성에 살던 동학농민군이 윤증 집안은 덕망이 있는 집이라고 방화를 만류하면서 불을 껐다고 한다. 이때 문간의 대들보가 그을렸는데, 그 그을린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명재 고택 전경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교촌리 306)



명재 고택 문간 |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방화에 의해 그을린 자리

충남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1

전봉준 장군은 제2차 봉기를 위해 1894년 9월 10일(음력) 전북 심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농민들을 규합 한 후 논산을 거쳐 공주로 진격하였다. 전봉준 장군 직속의 동학농민군이 복산을 시작하여 논산에 도착한 것은 10월 12일(음력)경이었다. 전봉준 장군은 논산에서 동학농민군을 초모(招募)하였으며, 이 때 농민군 수천 명이 합세하였다. 논산에서 10월 12일과 16일 사이 북접의 손병희 장군 직속의 동학농민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은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의 명의로 충청감사 박제순 등에게 일본군 축출을 위해 대의를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하는 편지와 통문 등을 보냈다. 각 지역의 수령들과 유림에게도 일본군 축출을 위해 봉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충남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2

연합전선을 형성한 동학농민군은 충청감영 소재지 공주를 점령하기 위하여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루면서 공주를 압박하였다. 그러던 1894년 11월 8일(음력)과 9일, 우금티에서 맞닥뜨린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관군 연합부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패하고 말았다.

11월 8일과 9일(음력) 우금티에서 패한 후 12일(음력) 노성으로 물러난 전봉준 장군은 다시 진영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추격하는 일본군과 관군에게 밀려 논산으로 후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개남 장군과 합류, 논산 소토산(小土山)에 진을 쳤으나 이내 일본군과 관군에게 밀려서 다시 인근 황화대로 후퇴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1894년 11월 15일(음력) 황화대(黃華臺)에 벌여졌던 전투에 참가했던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일본군 장교 모리오 가이찌(森尾雅一)의 지시를 받은 관군은 14일 밤 노성을 거쳐 논산으로 들어온 후 관군을 지휘하여 소토산(小土山)의 동학농민군 진지를 빼앗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화대(황화산성)는 논산시에서 강경으로 나가는 길목, 큰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들판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황화대는 그 산정이 평평하여 성(城)과 같은 곳이다. 산 능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사면에서 공격해오는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여산을 거쳐 전주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황화대 전투지

· 충청남도 논산시 등화동 산 2, 강산동 산83 일대

황화대는 우금티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일본군, 관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황화대는 논산 서쪽 들판 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산으로 강경으로 나아가는 국도변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해발 75m의 정상에는 황화산성(봉화산성)이 있는데 백제시대 의자왕이 산성을 축조하고, 그 위에서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황화산성은 총 둘레 약 800m 전후의 토성으로 성의 북쪽 정상 부분에 지름 약 10m, 높이 2m 가량의 토석으로 된 조선시대 봉수대 터로 여겨지는 원형의 토벽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황화대(근경)



황화대(원경)



황화산성비



황화(봉화)산성 안내문

학예사가 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일 시 2020년 8월 10일 14:00

장 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인터뷰 박아영·정명광(기념관 학예사)

Q

이번 소식지 『녹두꽃』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어린이·청소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박아영·정명광 학예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아영

저는 '생생문화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박 2일 답사 프로그램(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일반인 대상),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파랑새를 찾아서/다문화 가정 대상), 1일 체험 프로그램(황토현에서 하루/전국 중고생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꿈을 품은 박물관/전국 중학생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만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명광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기념관에서 직접 진행하는 관내 교육, 거리가 멀어서 정읍까지 못 오는 학교에 가서 하는 관외 교육, 전라북도 교육청과 연계한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균 연간 60회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는 2천 명 정도입니다. 제가 맡은 교육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Q 연간 2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동학농민혁명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어떤 경로를 통해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박아영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역, 전시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홍보용 배너 및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보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반인이나 학생들 중에 프로그램이 좋았다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진행할 때 중점 두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아영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대중들에게 어렵고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반란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학농민혁명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이 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신문 형식을 빌려 자신만의 동학농민혁명 신문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에는 사회, 경제, 국제, 광고 등 다양한 코너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신문 경제부 코너를 만든다면 직접 만석보 유적지를 가서 사진을 찍고 “동학농민혁명 수탈의 현장, 만석보를 가다”와 같은 기사를 써서 신문을 만들고 광고 면에는 출간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을 홍보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흥미에 맞는 부분을 학생들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신문을 완성해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교육의 자유학기제와 유사해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명광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소한 동학농민혁명 주제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교구재와 보드게임 등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는 아이들이 어려운 중국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만화 삼국지나 소설 등을 읽음으로써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드게임을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및 초등학교생에게는 녹두씨앗 심기, 입체퍼즐 만들기 등을 통해 주입식이 아닌 몸으

로 체계하게 하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 수준에 맞으면서도 재미있는 교구재를 만든다는 것이 힘든 과정이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보상되는 것 같습니다

Q 다른 박물관과 달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이 갖는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아영 다른 박물관들도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알려 그 정신을 전국화, 미래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 전문가 강연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해 교원 교수역량 강화와 수업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시민이나 학생들이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권수호 운동이며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간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광 무엇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양적·질적 측면 모두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외연을 확장하는데 좀 더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동학농민혁명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쉽게 다가가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는지요? 또 보람을 느꼈던 때는?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관은 2014년에 개관하였고 이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기념관이 인적이 드문 정읍 황토현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누가 여기까지 올까 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발로 뛰며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가 한 두 팀씩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시관 개관 이후 처음 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눈에 선하고요, 작년 교육을 참여했던 광주에 있는 특수교육 학교(은혜학교)의 아이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즐겁게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장애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맞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갖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명광

저는 ‘학예사’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구재 및 보드게임 등을 개발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을 잊고 다시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시골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밝게 맞이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아이들이 “선생님, 재미있어요. 또 수업 받고 싶어요.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 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박아영 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기념관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농한기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으신데 기념관에서 ‘짚신 만들기, 장아찌 만들기’ 등과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박물관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근현대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면 각각 자신의 역사와 비교해 보는 장으로도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광 이번 코로나19 상황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쌍방으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온라인 보드게임 등을 개발해서 비대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 개발한 교구재 및 보드 게임을 지자체 및 학교에 배포하여 동학농민혁명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은 인근 지역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아영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역사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 역사에 좀 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질곡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게 된다면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명광

제가 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서두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역사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가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배운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역사와 친해졌으면 좋겠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서 저희 학예사도 사명감을 갖고 매진하겠습니다.

녹두꽃, 다시 피다

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 지난 6~8월사이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갑오 선열의 생명존중,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숭고한 공동체 정신을 체험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사의 이해를 위하여 농민군 되어보기, 녹두씨앗 심기, 팝업북 만들기, 입체퍼즐 만들기, 보드게임 등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중고생과 성인·가족을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교원 직무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 내흥초등학교(2020.6.4.)



정읍 입암초등학교(2020.6.9.)



부안 동북초등학교(2020.6.23.)



서울 신남성초등학교(2020.6.25.)



김제 김제초·월촌초등학교(2020.7.7.)



부안 격포초등학교(2020.7.8.)



정읍 정남초·덕촌초등학교(2020.7.21.)



정읍 다문화센터(2020.7.25.)



군산 창오초등학교(2020.7.25.)



정읍 호남중학교(2020.8.2.)



정읍 호남중학교(2020.8.2.)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2020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다시 피는 녹두꽃

2020년 7월 ~ 11월

1차2일 탐사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10월 17일 ~ 19일(토 ~ 월) 10월 24일 ~ 26일(토 ~ 월) 10월 31일 ~ 11월 1일(토 ~ 월) 11월 7일 ~ 8일(토 ~ 일)
다문화 가정 박장새를 찾아서	9월 12일(토), 9월 19일(토) 9월 25일(토), 10월 14일(수)
1일 체험 힐트 현전직장에서 하루	9월 5일(토), 9월 10일(토) 9월 14일(토), 10월 15일(토)
자유학기제 꿈을 품은 박물관	7월 2일(토) 9월 18일(토), 9월 25일(토) 11월 6일(토)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운영부 (063-536-189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활동' 항목 참조(www.1894.or.kr)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최 : 문화재청, 문화재청장관실, 문화재청장관실, 문화재청장관실, 문화재청장관실, 문화재청장관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중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꿈을 품은 박물관'은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학예사라는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미래에 학생들이 진로를 모색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폭을 넓힐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실 관람, 동학농민혁명 퀴즈 및 퍼즐 풀기, 박물관의 기능 및 학예사 직업 이해, 진로직업 체험으로 깨진 도자기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체험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일정 변경
참가신청시 문의바람(063-536-1894)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 꿈을 품은 박물관 / 익산 부송중 역사문화탐구반 24명(2020.7.2.)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4월 7일(음력)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에 자리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온 주요 단체는 광주광역시 삼우회(13명), 전남 영암군농민회(17명), 전남 화순·순천농민회(20명), 전북 익산시 합열여고(12명) 등이다.



① 광주광역시 삼우회
③ 전남 화순·순천농민회

② 전남 영암군농민회
④ 전북 익산시 합열여고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6월 26일	NEWS1	'동학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기념재단 특별 전시회
7월 2일	연합뉴스	동학혁명 정신 계승...전주에 교육·체합 '파랑새관 11월 준공
7월 9일	동양일보	동학혁명 127주년 의의 새롭게 조명에 큰 뜻
7월 15일	전북일보	고창군, '제17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개최
7월 21일	위키트리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고창동학농민혁명!
7월 21일	아시아경제	장흥교육지원청 '장흥동학농민혁명 프로그램'운영
7월 22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월 14일까지 민간소장 유물 구입
7월 2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재조명
7월 29일	NEWS1	동학기념재단, 전국 청소년 대상 '2020생생문화재'운영
8월 13일	새전북신문	정읍시, '전투로 살펴본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8월 13일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전국·세계·미래화 꿈꾼다
8월 17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박물관 교육 박람회'참가
8월 18일	새전북신문	정읍시 '전투로 살펴본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8월 23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첫발
8월 23일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전봉준장군 생가 터 종합정비
8월 26일	오마이뉴스	"2차 동학농민혁명 = 독립운동"〈독립운동사〉 쓴 이의 근거는
8월 26일	정읍시사	정읍, 동학농민혁명 정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8월 26일	정읍시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박물관 교육 박람회'참가
8월 29일	전주KBS	뉴스, 동학혁명 '편하·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물 '물의'
9월 6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국역총서 12' 발간
9월 9일	전북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지도자 양성교육
9월 13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태동 30년사 대기록, 45년 동안의 기록 '홍재일기'
9월 14일	광주리포트	동학농민혁명·5.18민주화운동·촛불혁명까지 한눈에...

2020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명 및 활동내용			운영일정	참여대상/인원	장 소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는 하늘이다'	어린이전시실 관람, 농민군 되어보기, 팝업북 만들기	6 ~ 12월 (수·목·금) 60분 소요	미취학 아동~ 초등 2학년/ 30명 내외(단체)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청소년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동학농민혁명 이해, 팝업북 만들기, 도전 골든벨	6 ~ 12월 (수·목·금) 이론 40분/ 체험 80분	초등 3학년~ 중고등학생/ 30명 내외(단체)	교육관, 전시관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동학농민혁명 이해, 입체퍼즐 만들기, 동학보드게임	6 ~ 12월 (월·화) 이론 40분/ 체험 80분	초등학생 전 학년/ 30명 내외	전국 초등학교 방문 운영
교원직무 연수	전문 강사의 강연 및 유적지 답사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하반기/ 1박 2일	전국 초·중등 교원/ 40명 내외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생생 문화재	1박 2일 답사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10 ~ 11월 (4회)	일반인 (성인, 가족)/ 38명 내외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파랑새를 찾아서'			9 ~ 10월 (5회)	전국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 38명 내외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1일 체험 프로그램 '황토현에서의 하루'			9월 ~ 10월 (4회)	전국 중고등학생/ 38명 내외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꿈을 품은 박물관'			7월 ~ 11월 (4회)	전국 중학생/ 38명 내외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접속 → '교육체험' 이동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일정 확인
 전화 문의 : 063-536-1894 (기념관) / 대표 이메일 : 1894@1894.or.kr
 자세한 일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기념관 전시해설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1894.or.kr)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동 → 관람예약 또는 전화문의 (063-536-1894)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 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 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 수 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8-289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